시·도 상생, 혁신도시 기금 등 해법 찾나

이용섭시장·김영록지사 다음달 비공개 회동
광주시·전남도 지역현안 돌파구 마련할 지 관심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다음달 25일 공식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전남 주요 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두 단체장은 공식 회동을 앞둔 시점에 비공개 단독 회동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털어놓을 예정이어서 그동안의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지역민의 기대가 높다.

정치권에서는 상생발전위원회가 광주·전남 공동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시·도지사가 올 들어 처음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만남을 그동안 소홀했던 관계를 복원하고 지역 공동 발전을 견인하는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꼬인 상생, 풀리나=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 주요 현안마다 입장 차이를 드러내면서 '상생' 이 무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전공대 유치전으로 다소 소원했던 관계가 한전공대 광주·전남 범시도민 지원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역 역량을 결집하는 데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마무리된 것을 제외하면 현안마다 파열음을 내고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둘러싼 갈등을 빚어온데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내며 갈등 양상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의 소극적 태도와 맞물리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상생발전위원회가 그동안 실타래처럼 꼬인 현안을 풀고 지역 공동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 추진해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기대감도 높다.

당장,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기존 과제에 더해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 및 복합혁신센터 건립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동대응 ▲하남~장성 삼계 간 광역도로 개설 ▲광주~고흥 간 도로 개설 등도 세부 안건으로 상정,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군 공항 이전 문제와 무안공항 명칭 변경 문제의 경우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간 입장차가 첨예한데다,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차후에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상생발전위원회를 앞둔 시점에 시·도지사가 비공개 단독 회동을 가질 것으로 전해지면서 핵심 현안에 대한 물밑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39개 협력과제, 24개는 추진중=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6기 초기인 지난 2014년 10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금껏 8차례 회동을 갖고 지역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 추진해왔다.

상생발전위원회가 8차례 회의를 통해 발굴한 협력과제는 39건으로, 15개 과제를 완료하는 성과를 남겼고 24개 과제는 추진중이다.

완료한 과제는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제 2 남도학숙 설립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하계 U대회 성공개최 ▲광주전남 갤러리 공동운영 등이다.

계속 추진중인 과제로는 ▲한전공대 설립 ▲광주 군 공항 이전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조성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광주·전남 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방문 추진 ▲광주·전남 공동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 등이 꼽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매년 2차례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해오다 지난해 하반기(8월) 개최 이후 올해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을 이유로 1년2개월 넘게 개최하지 못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보성 제암산·장성 백양사로 단풍보러 오세요

전남도 이달의 추천 관광지 선정

전남도가 11월을 맞아 단풍으로 유명한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과 '장성 백양사'를 이달의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다.

보성에서 가장 높은 제암산의 정상은 해발 807m로, 봄에는 철쭉, 가을에는 억새꽃, 겨울에는 눈꽃이 아름다워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다. 4~5시간 동안 제암산 관리사무소수변관찰 데크로드-짚라인 매표소-물빛 언덕의 집-더늠길-알반로-제암산 관리사무소로 돌아오는 코스가 유명하다.

장성 내장산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단풍명소로, 백암산과 입안산을 묶어 내장산 국립공원이라고 한다. 장성백양단풍축제가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으로, 공원 입구에서 백양사까지는 약 1.5km가 평탄하고 아름다운 단풍길이다.

백양골 자연관찰로를 따라 자연 생태계를 구경하고 갈참나무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백양사 쌍계루에 다다른다.

전남도의 월별 추천 관광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전남도 종합 관광정보시스템 '남도여행길잡이(www.namdo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지사 품질인증 Non-GMO 제품 급식 납품 검토

김영록 지사 여섯번째 민박간담회

김영록 전남지사가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Non-GMO 제품이 전남 학교급식에 우선 납품되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자연드림파크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생산·가공·유통을 총망라한 농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전국 최초 친환경농업도시 구례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구례군 주민들은 소득 창출이 가능한 시설을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신규 설치해 주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 29일 구례 산동면 현천마을 주민과 자연드림파크 종사자 등 블루농수산 관계자와 올 들어 여섯 번째 민박간담회를 가졌다.

민박간담회에는 김순호 구례군수, 이현창 도의원, 김송식 군의회 의장 등이 함께했다. 현천마을회관에서 40여 명의 주민과 진솔한 삶의 대화를 나눈 후, 구례자연드림파크로 장소를 옮겨 30여 명의 구례지역 '블루 농수산' 농식품 유통 분야 종사자 등과 밤 10시가 넘도록 애로사항과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김 지사는 마을 주민대화에서 "최근 새천 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과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산업 추진을 위해 시군 공모사업을 추진한 결과, 구례 화엄 4색이 어우러진 '블루 투어' 프로젝트가 선정돼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도와 구례군이 힘을 합쳐 도정을 힘차게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시현(71) 마을 개발위원장은 "마을 소득 창출에 기여하도록 공동작업장 및 특산물 판매장 리모델링과 함께 수상정자 설치를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구례자연드림파크로 자리를 옮겨 농식품 유통 종사자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자연드림파크 종사자와 도지사품질인증업체 등 농식품 유통 분야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생산 위주의 친환경농업에서 벗어나 가공·유통·체험·관광을 아우르는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식품 산업 소득 창출 방안을 토론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무등산 정상개방 다음달 2일
시내버스 노선 65회 늘려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 개방일인 오는 11월 2일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원효사행 시내버스 1187번, 1187-1번 등 2개 노선을 평소보다 65회 늘어난 총 177회 운행한다.

1187번 노선은 9대를 증차해 광천동에서 터미널, 광주역, 금남로5·4가역, 문화전당역, 산수오거리를 경유해 원효사까지 10~30분 간격으로 17대가 129회 운행된다. 1187-1번 노선은 20~25분 간격으로 3대가 48회 운행된다.

또 승용차를 이용하는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장원초등학교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한다. 증심사 방면은 9개 노선 113대가 1073회 운영된다.

한편 무등산 정상은 1966년 군부대가 주둔한 이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으로, 올해는 5월에 이어 두 번째 개방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궁동 미로센터 내일 개관 광주시 궁동 예술의 거리에 들어선 주민문화예술시설 '미로 센터'가 11월 1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광주시 동구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에 선정돼 추진한 '미로 센터'는 갤러리, 공연장, 라이브러리, 공방, 창작실, 교육·체험 공간, 카페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예술의 거리 문화 발신지 역할을 하게 된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취임

조인철(55·사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민특별위원회 사무국 부국장이 30일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취임했다.

조 신임 문화경제부시장은 영광 출신으로 광주 서석고와 고려대학교 서문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40회) 합격 후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예산실, 성과관리본부, 국무총리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재부 예산실, 문화예산과 등에서 예산 및 경제관련 업무를 주로 다뤄왔다.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파견관도 지냈다.

조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주 경제에 풍요로움을 담아낼 광주형 일자리의 완성과 대한민국 인공지능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아시아를 품은 문화의 숲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흑산 홍어잡이 어구어법 국가어업유산 신청' 최우수상

전남도 공무원 연구모임 대회

전남도가 공무원의 자발적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창의적 시책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한 2019년 공무원 연구모임 발표대회에서 '흑산 홍어잡이 어구어법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신청'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남도는 2019년 공무원 연구모임의 우수 정책연구모임 선정 2차 발표대회를 지난 29일 개최했다. 올해는 24개 연구모임을 선정, 지난 6개월간 도 산하 공무원과 외부위원 등 227명이 참여해 자발적 정책연구를 진행해왔다.

심사위원들은 시책화 가능성, 창의성, 논리성, 계속성, 발표력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특히 창의성과 시책화 가능성에 높은 비중을 둬 공직자의 창의적 시책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평가했다. 심사 결과 '남획, 바다환경 변화로 사라져가는 어종 및 어구어법 변천사 연구'를 주제로 흑산홍어잡이 어구어법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신청 등을 제안한 '바다탐험대' 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